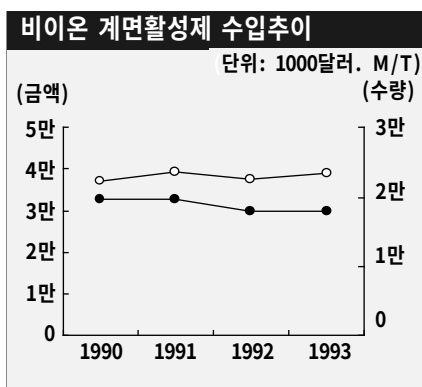


POE시장 “초긴장” 돌입

현대 EO시장 참여로 ... EOA시장 직접 진출 움직임도

POE(Polyoxyethylene) Alkyl Ether 계면활성제형 시장이 오는 94년 8월31일 이후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풀리면서 그동안 EO를 국내에 공급해 오던 대기업들이 직접 EOA(Ethylene Oxide Additive)시장에 참여할 움직임을 빠르게 하고 있어 비이온 계면활성제 제조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EOA의 원료로 사용되는 EO를 생산하는 기업은 호남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으로 양분되어 왔는데 현대석유화학의 신규참여로 공급과잉의 양상을 빚게 돼 이들 석유화학기업들에게 경영악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EO의 특성상 수출이 어려워 국내에서 모두 소화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EO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EOA 제조기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 삼성종합화학과 호남석유화학에서 생산이 예상되는 EO의 양은 5만 5900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EOA 제조기업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양은 2만 6000톤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돼 공급과잉의 폭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존의 EOA기업들은 결국 대기업들이 경영악화의 부담을 덜기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풀리는 POE Alkyl ether 계면활성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 계면활성제 조합을 중심으로 이에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POE Alkyl ether 계면활성제 시장의 규모는 93년에 65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국포리올, 동남합성, 한농화학, 일칠화학 4개 기업이 국내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자급도는 70% 미만으로 나타났다.

POE alkyl ether 계면활성제의 원가구성비는 EO가 70%, 부가물이 30%인 것으로 나타나 93년 한해 동안 POE제품의 가격이 EO가격의 하락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O3몰에 Nonylpenol을 부가한 NP3은 KG당 1000~1200원, EO3몰에 천연알콜인 Laury Alcohol을 부가한 LE3는 1200~130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